10.15686/fkl.2024..63.370
OPEN ACCESS

김멜라 소설에 나타난 '삶-죽음'의 퀴어 시간성

강남규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목차

1 서론
2 이성애(straight) 규범의 시간을 탈주하기
3 기억-유령의 현존과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
4 무덤 속의 삶,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
5 결론

본고는 김멜라의 초기 단편집『적어도 두 번』과『제 꿈 꾸세요』에 나타난 퀴어한 시간에 대한 윤리적·정치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퀴어'는 이성애 규범을 비롯하여 각종 주류적 '정상성'을 구성하는 기율을 해체하고 탈주하는 실천이자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분절하고 보편 인간 주체를 가정하는 고전 물리학의 선형적(straight)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성애 규범과 착종되면서 퀴어를 '존재하지 않는 것non-being' 또는 '삶이 아닌 것non-life'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퀴어 관계가 자아내는 퀴어한 시간이 선형적 시간을 탈주하고 무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김멜라는 이성애 규범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타자들의 형상을 그린다. 그들은 경계 위에 선 존재로 상실의 슬픔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성애 규범은 주류의 시간적 논리를 통해 타자들의 몸과 삶을 규범화하고 생성한다. 김멜라는 이 선형적(straight) 시간으로부터 탈주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한국문학에서 출몰하는 유령적 존재들과는 다른 형태의 유령을 등장시킨다. 그들은 물질성을 띤 유령으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며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을 형성한다. 반복적인 애도의 실패는 이들에 대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했을 때, 기억은 나에게 남은 타자의 흔적이자 타자들이 '나'를 통과해간 무수한 흔적이다. 따라서 기억-회상은 과거를 현재화하고 죽은 자의 흔적을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다. 결국 산 자는 죽은 자의 흔적을 통해 내 안의 타자와 관계맺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중첩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무한한 잠재성을 삶 속에 품은,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으로 그 앞에 열린 것은 삶/죽음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삶-죽음의 '사이', 근대적 시간이 해체되고 뒤섞이는 잠재적 창조의 시간이다. 이는 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대문자 지구와의 얽힘을 감각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은 '사건'으로, 차후 김멜라의 작품 세계가 포스트휴먼 존재론으로 나아갈 단초가 된다.

국문핵심어: 퀴어 시간성, 유령, 기억, 애도, 이성애 규범성, 관계적 존재론, 양자

1 서론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장은 페미니즘/퀴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퀴어 서사를 독해하는 방식 또한 다양화·예각화되어 왔다. 퀴어 서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무엇이' 퀴어 서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해 오혜진은 퀴어 문학을 고정적·규범적 범주가 아닌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적 지배 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현상 및 상상력을 포착하고 실험함으로써 '정상성(normality)'이라는 기율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정치적·미학적 효과를 산출하는 문학"이라는 맥락적이고 구성적인 토대로 사유할 것을 주장한다.[1]

김멜라의 소설에 나타난 '퀴어'는 고정된 정체성의 차원이기보다 '정상성'의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방식 또는 관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주디스 잭 핼버스탬이 말했듯, 퀴어성은 누구와 섹슈얼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류적 라이프스타일과 맺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성애적 재생산을 생애주기의 핵심 사건으로 간주하는 주류적 시간성이 '정상적' 삶을 규범화하는 주요 기제라고 했을 때, 퀴어성은 이 주류적 시간성을 탈주하는 삶의 방식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따라서 '퀴어 시간성'은 곧 "이상한 시간성, 창의적인 생활 일정, 특이한 경제적 실천" 등 이성애 재생산 중심의 문화에 포섭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의미한다.[2] 김멜라가 그리는 인물들-간성(IS), 레즈비언,

1 '퀴어 문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오혜진, 「지금 한국 문학장에서 '퀴어한 것'은 무엇인가」,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봄, 2019, 390쪽; 백종륜, 「한국, 퀴어 문학, 역사: '한국 퀴어 문학사'를 상상하기」, 『여/성이론』 통권 제41호, 도서출판여이연, 2019를 참조했다.

2 핼버스탬은 "출생, 결혼, 재생산, 죽음이라는 삶의 전형적 지표" 밖에서 퀴어의 하위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집중한다. 또한 그녀는 시간성을 통해 퀴어성을 표현하면서 "이상한 시간성, 창의적인 생활 일정, 특이한 경제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퀴어성은 특정한 시간의 형태 및 역사적 시기에 발명되고 문제화된 특성이자, 특권화된 사건적 경험을 폭로하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J. Jack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Part

장애인, 아이, 유령 등 비체화된 경계 위의 타자들은 규범 권력이 수호하는 '정상성'의 내부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적 생애주기 모델과 불화하며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김멜라가 그리는 인물들은 모두 '정상성'의 규범을 벗어나는 퀴어의 시간을 살아간다.

김멜라는 첫 단편집 『적어도 두 번』, 『제 꿈 꾸세요』에 이어 첫 장편집 『없는 층의 하이쎈스』, 단편 「이응이응」, 두 번째 장편집 『환희의 책』을 출간했다. 김멜라의 세계는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 내에 존재하는 비/존재 유령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나아가 상호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다수의 비인간 타자들과의 엮임을 감각하는 탈-인류중심주의, 탈-인간주의, 탈-이원론의 포스트휴먼 관계 윤리학으로 확장된다. 본고는 단편집 『적어도 두 번』과 『제 꿈 꾸세요』를 통해 김멜라의 초기 세계를 구성하는 삶과 죽음, 시간성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사유에 천착하고자 한다.

김멜라는 최근 비평계에서 몸, 섹슈얼리티, 장애, 기억과 애도, 퀴어 관계학, 유령 등을 논함에 있어 활발하게 호명되어 왔다. 대부분의 논의는 작품 하나만을 다루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김멜라의 작품 세계가 노정하고 있는 특성에 천착하는 연구는 드물다.[3] 그중에서 심진경의 글은 「물질계」, 「논리」, 「제 꿈 꾸세요」를 통해 김멜라가 그리는 '레즈비언-되기'가 다른 존재들과의 경험과 가능성을 통해 가부장제의 남근중심성과 이성애적·재생산적 규범의 '닫힌 세계'를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불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사건들이자 '과정 중의 주체'이라는 차원에 주목한다.[4] 본고는 심진경의 글의

---

of: Sexual Cultures, 2005, 1;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105쪽에서 재인용.

3 심진경의 논의 외에 김멜라의 작품을 다룬 비평들은 다음과 같다. 전승민, 「파종하는 퀴어-파르티잔들」, 말과활플러스, 2021.3.5.; 인아영, 「메토니미, 사랑」, 『문학동네』 113호, 2022; 이소, 「키치 대신 미래를 드립니다-김멜라론」, 『문학과사회』 137호, 2022; 오혜진, 「'표표, 파파야, 모모'가 있는 풍경-김멜라 「저녁놀」의 에로스에 부쳐」, 『문학과사회』 137호, 2022; 김요섭, 「우리가 인간이기를 멈출 때」, 『문학과사회』 140호, 2022; 양윤의, 「사이존재'들'과 비존재'들'」, 『문학과사회』 143호, 2023; 전승민, 「몸짓의 진화」, 『2024 제1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4.

4 심진경, 「남성을 넘어, 여성을 지나, 떠오르는 레즈비언-김멜라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

논의에 동의하면서, 「물질계」에서 양자역학이 담지한 시간성의 문제가 김멜라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보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천착하고자 한다. 그것은 '레즈비언-되기'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기존의 세계에서 삶을 박탈당한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삶'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차후 이분법적 성을 넘어 '인간' 너머의 풍경까지 우리를 데려다줄 수 있을 것이다.

김멜라는 이성애 가부장제의 규범 내에서 불편함을 감각하는 타자들의 고통을 그린다. 그들은 퀴어를 죽음과 연결짓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박탈하여 유령화하는 이성애 규범성에 질문을 던진다. 본고는 '퀴어'로부터 삶을 박탈하는 대문자 인간-남성 중심의 기제로서 과거-현재-미래로 분절화하는 진보주의의 선형적 시간성이자, 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적인 시간 규범을 문제 삼고자 한다. 시간성에 천착하는 이유는 시간이야말로 이성애 규범의 장치들 중에서도 '인간'의 삶, 라이프스타일,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이다.[5] 이성애 규범성은 젠더 이분법을 자연화하며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상징권력으로 작동한다. 강제적 이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일대일 결합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이분법적 젠더 상징권력의 바깥 또는 경계에 놓인 섹슈얼리티를 배제하고 그들로부터 '삶'과 애도를 박탈한다.[6] 그 결과 퀴어는 '삶이 아닌 것non-life'으로 비체화되는 것이다.

과사회』 140호, 2022, 6-25쪽.

5 엘리자베스 프리먼은 시간성을 "제도적 힘이 신체적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주입의 방식"이며, "일정, 달력, 시계 등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시간적 경험의 형태를 심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특권화된 시간적 경험의 주입은 역사적으로 비대칭적 권력 체제를 평범한 신체적 리듬과 루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규범적 서사는 "정신분석학계 및 의료계 종사자부터 모든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학, 인구통계학, 그리고 정서적인 것과 미적인 것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해 방식 속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데의 거의 모든 근간을 형성한다."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103-105쪽.

6 '정상성' 규범에는 상대가 '좋은 상대'여야만 한다는 암묵적 조건이 들어가 있어 젠더뿐만 아니라 연령, 인종, 계급 등을 위계화하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애 규범성은 이분법적 젠더 상징권력만이 아니라 여타 요소들마저 위계화하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남성에 의한 여성/자연/타자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성애 규범은 결혼과 재생산의 자리를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애 경로[7]를 제도화한다. 이 이성애-재생산 중심의 미래주의는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 발달의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으로 전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성애적(straight) 재생산을 특권화한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이 가정하는 선형적(straight) 시간은 '출생, 결혼, 재생산, 죽음'이라는 선형적인 발달을 자연화하는 정상성 생산의 기제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분절화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간과 문명이 발전할 것이라 믿는 서구 휴머니즘의 계몽주의적·식민주의적 시간과 겹쳐진다. 따라서 고전 물리학이 가정하는 과거-현재-미래의 선형적(straight) 시간성은 이성애 규범성이 자아내는 재생산 미래주의(reproductive futurism)의 시간성과 착종됨으로써 선형적 시간은 동시에 이성애적 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김멜라는 이성애 규범의 선형적 시간을 탈주하기 위해 유령의 형상을 등장시킨다. 유령은 충분히 애도되지 못해 죽음으로부터 되돌아온 비/존재이거나 살아 있음에도 비가시화되는 존재로, 한국에서 유령은 망각된 역사적 죽음의 귀환으로 우리 사회의 상징적 질서가 가진 폭력성을 비판하는 형상으로 재현되어 왔다.[8] 하지만 김멜라가 그리는 유령은 이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멜라의 유령은 '길손'이라고 불리우며, 그들은 죽었다 '돌아온' 자가 아니라 그저 길손으로 '깨어난' 이들이다. 인간과 비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횡단하여 산 자

7 생애 경로란 "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시킨 일련의 사건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핼버스탬은 이성애 규범이 '탄생-결혼-재생산-죽음'을 생애 경험의 전형적 표지들로 구성하며 그중에서도 결혼과 재생산의 자리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퀴어 시간 이론은 규범적인 시간 경로를 거부하고 대안적·비규범적·일시적 생애 배열을 지지한다. 제인 갤럽,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22-25쪽.

8 최근 한국 문학에는 '새로운 유령적 존재'들이 "스스로 인간이길 멈춘" 비인간(the non-human)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죽음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끄무레하고 부유하는 유령적 존재들은 인간적 삶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비인간 동물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인간' 주체에 질문을 던지고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한국문학의 유령 서사에 대해서는 김다솔, 「유령의 자리, 유령의 미래」, 『문장웹진』, 2024.01.01. 참조.

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는 유령의 존재론은 김멜라 세계의 핵심을 구성한다. 김멜라는 타자의 죽음에 드리워진 부정적 함의들을 거둬들이고 재-기억함으로써 애도를 박탈하는 헤게모니적 규범에 저항한다. 김멜라의 죽은 자는 실재와 비실재 사이를 부유하는 유령이 아닌 물질성을 가지고 주변과 관계 맺는 존재로 '깨어난다'. 그로써 죽음은 변증법적 이항 대립의 위계질서를 탈주하여 우리를 둘러싼 인간/비인간 존재들, 더 나아가 대문자 지구와의 연결까지도 체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공간을 열어젖힌다.

본고는 김멜라의 작품에 나타난 기억과 애도의 문제, 그리고 시간성을 윤리적·정치적으로 재사유하는 상상력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디스 잭 핼버스탬과 앨리슨 케이퍼의 '퀴어 시간성' 개념과 캐런 바라드의 기억과 애도의 시간성에 관한 논의들을 참조한다. 바라드에게 퀴어란 정체성과 이분법에 대한 급진적인 문제 제기이자,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급진적인 개방적 수행을 통해 얽혀 있는 관계성을 나타낸다.[9] 나아가 바라드는 진보와 단선적 역사를 상징하는 서구 문명의 시간과 역사 개념이 식민주의·인종주의·군사주의의 시간성에 기반해 있음을 비판한다. 선형적 시간은 과거를 이미 지나간 시간,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시간 개념이다.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바라드는 더 이상 우리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과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요청한다. 이는 곧 생명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연결을 인지함으로써 '다르게 살고 다르게 죽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윤리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10]

---

9 캐런 바라드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초하여 독립된 개인을 부정하고 타자와의 관계·만남을 통해서 존재하고 생성되는 '우리'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물질적인 풍부함 속에서 무한히 얽혀(entangle) 있는 상호연결망 속에서 몸과 세계는 수행적으로 존재한다. 바라드의 개념인 '얽힘(entanglement)'은 삶 속의 모든 것이 관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로, '내부-작용'은 독립개체들을 전제하는 '상호작용'을 대신하고, '현상'은 내부-작용하는 관계들(relations)을 가리킨다. 바라드의 이론은 양자역학에서 '양자장론(quantum field theory)'으로 확장되어 얽힘과 기억, 비결정성과 무한성, 무와 진공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윤리와 정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전망으로 나아간다. 박신현, 『캐런 바라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23, 5-11쪽.

10 Karen Barad, "Troubling time/s and ecologies of nothingness: re-turning, re-mem-

김멜라의 상상력은 이성애 규범이 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를 통해 타자들을 비체화하는 미래주의의 선형적(straight) 시간을 해체한다. 제도화된 생애 경로를 거부하고 비규범적 관계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균질적·선형적·진보주의적인 시간성에 균열을 일으키고 퀴어한 시간을 열어젖힌다.[11] 대문자 '아이'를 미래로, 퀴어를 죽음으로 표상화하는 세계에서 남겨진 자들은 떠나간 타자들의 흔적을 기억함으로써 애도한다. 김멜라는 타자들의 슬픔과 고통, 죽음으로 가득 찬 남성 유일자의 세계에서 죽음의 기억과 슬픔의 정동을 끌어안을 것을 제안하고, 그것은 유령이 출몰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유령은 나타나는 순간 타자의 삶과 죽음을 '삶이 아닌 것non-life'로 규정하고 애도를 박탈하는 이성애 규범을 정지시키고 선형적 시간을 무화한다.

상실의 아픔을 떠나보내지 않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멜랑콜리아, 끊임없는 애도의 실패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이고, 산 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이 다중으로 중첩되는 얽힘(entanglement)을 발생시킨다. 유령(길손)이라는 형태로 물질화된 기억은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 과학의 선형적(straight) 시간관과 이성애(straight) 규범성을 탈주한다. 그것은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실천을 통해 창발을 일으키는 완결되지 않는 지속이다. 김멜라는 이러한 유령의 존재론을 통해 이성애 가부장제와 정상성 규범의 공백으로부터 퀴어 시간성의 대안적 미래라는 새로운 윤리적 지평을 제시한다.

2 이성애(straight) 규범의 시간을 탈주하기

이성애를 보편으로 규범화하는 근대 기획은 동시에 남성을 이성의 담지자, 대문자 인간Man으로 가정하는 서구의 휴머니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공식 역사를 누가 기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류 휴머니즘 문화는 중산층-백인-유럽인-남

bering, and facing the incalculable", *New Formations* Volume 92, Lawrence&Wishart, 2017, p.64-65.

11 무뇨스는 이성애 중심의 시간 속에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요구하고, 갈망하며, 상상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이면서도 퀴어한 욕망을 나타내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Jose☒ Esteban Muñoz, *Cruising Utopi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p.26.

성-이성애자인 법적 시민들의 지배적인 기억을 옹호하고 남자/인간은 인간 진보의 보편 척도로 세워진다. 이 헤게모니적 관념은 자기규제적인 합리적 판단, 도덕적 자기 발전, 계몽된 통치를 가치로 내세우며 인간 문명의 발전이라는 목적론에 따라 과학적·도덕적 기준을 규정한다.[12]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결정짓는 휴머니즘-인간중심주의는 진화론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관 속에서 다양한 존재 집단을 위계화하며, 동시에 성별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이들을 '인간'이라는 범주 바깥으로 추방함으로써 타자화한다.

인간과 비인간, 문명과 자연, 남성과 여성 등의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경계는 선험적 실재가 아닌 인간의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재생산 중심의 이성애 규범은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사회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이분법적 성을 선험적인 것으로 '자연화'한다. 이성애 규범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별 이분법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상징체계 바깥으로 추방한다. 이들은 이성애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를 교란시키는 존재들로서, 추방당한 존재들은 비체[13]가 된다. 이렇게 비체들은 '인간됨'의 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에 대립되는 영역으로서 부정의 대상이 된다.

대문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삶, 문화, 가치가 재생산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각본은 국가의 정치적 실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몸과 삶을 형성한다.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와 이성애 규범은 규범과 이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몸과 세계를 형성하는 감정을 통해 강력하게 작용한다. 규범은 적법한 인간의 몸은 어떤 것이고 그럴 수 없는 몸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범주화한다. 따라서 젠더 규범은 누가 '인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살 수 없는 삶(un-

12 로지 브라이도티, 윤조원·이현재·박미선 역,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아카넷, 2024, 45쪽.

13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체는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상징체계에서의 통일적 삶을 위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가 거부된 것/내뱉어진 것, 사회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비체를 상징체계에서의 젠더 되기의 부산물로 설명한다. 이성애-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 안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특정 젠더가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되려면 이분법적 젠더 체계에 위배되는 몸과 섹슈얼리티를 비체로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재, 「포스트모던 도시화와 비체 되기-젠더 '행하기(doing)'와 젠더 '허물기(undoing)'의 역동」,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도시인문학연구, 2017, 158쪽.

livable life)"인지 판별함으로써 인간의 자격을 박탈한다. 인간 범주는 보편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개념으로,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함으로써 "인간을 차별적으로 생산하는 권력의 장"이다.[14]

「호르몬을 줘줘요」를 통해 이성애 중심의 젠더 이분법이 규범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인터섹스(IS)인 화자 '나'(구도림)의 '버섯'은 기준에 미달하여 남성기가 될 수 없는 '버섯'이기 때문에 '나'는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없다.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기 확대술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여성이 되려면 남성기를 제거하고 자궁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이분법적 '남성'과 '여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그저 '버섯'과 '자궁'으로 이분되는 성기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이분법적 성별이 지배하는 '정상'의 세계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가부장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분법은 전자에 의한 후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위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생리휴가를 쓰는 간호사들을 욕하는 남자 의사,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 여자를 괴롭히는' 성적 취향이 지배적인 포르노 시장,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간 '유지'의 아버지,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야말로 타자를 상징체계 밖으로 추방하고 이성-로고스와 대립되는 파토스, 배려, 돌봄과 같은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변증법적 세계의 민낯이다.

대문자 남성Man을 보편적 인간의 형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성차 관념은 현대 의료의 진단권력 또는 과학이라는 이성과 객관성을 담지하는 사회적 구성물에 의해 정당화된다. 의사인 '닥터 파이팅'은 인간의 뇌에 성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1000명당 두 명'이라는 성증후군 환자를 '비정상', 나머지 다수자를 '정상'으로 규정짓는 상징권력을 행하는 주체로 자임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차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는 이성애라는 사회계약과 그에 따른 위계를 자연화한다.

따라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타자, 젠더 이분법의 상징 체계와 이성애 규범으로부터 미끄러진 퀴어는 이성애 가부장적인 '정상 가족'에 불행을 가져오는 원흉이자 미래에 불행이 담보된 표상이다. 출산이 불가능한 퀴어 사랑은 미래

1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12; 45-46쪽 참조.

를 담보하는 아이의 이미지가 부재하기에 미래가 없는 것,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된다. 생물학적 재생산의 결과물인 대문자 '아이(the Child)'를 미래를 담보하는 표상으로 삼는 '재생산적 미래주의(reproductive futurism)'는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성애 규범성을 유지·지속시켜 왔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진보적 시간 개념에 따른 단일한 역사 개념을 추종하는 선형적(straight) 시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애(straight)-재생산 중심의 규범을 내재화하는 것이다.[15]

「물질계」는 퀴어-운명을 죽음으로 의미화하는 남성-이성 중심의 지배 질서를 탈주하는 실천으로서 상호윤리적 관계성의 '열림'으로부터 퀴어성을 모색하는 장이다. 화자 '나'(홍주)는 어린 시절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라는 할머니의 저주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16]

> 아홉살의 나는 내 존재의 비밀을 깨닫기라도 한 듯 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 어렴풋이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라는 것을. 내 안의 숨겨진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와 내 집안을 말아먹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리라는 것을.[17]

> 대체 내가 무엇으로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넌 커서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래." 코피를 흘리며 고종사촌이 말했을 때 나는 내 운명의 암호가 밝혀진 듯 온몸이 얼어붙었

15 이로부터 나아가 리 에덜먼은 미래성이 언제나 재생산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퀴어와 퀴어 이론이 미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낫다는 퀴어 부정성의 주장을 펼쳤다. 관련 내용은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도서출판여이연, 2021, 446쪽;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88-91쪽 참조.

16 이때 홍주의 충격은 "거대한 빙하가 내 가슴에 거꾸로 박혀 그 어떤 빛이 와도 녹지 않을 것만 같"다고 묘사된다. 이후에도 「물질계」에는 '운명의 빙하', '가슴의 빙하', '죽음의 운명' 등의 서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두 번』에 실린 다른 작품 「모여있는 녹색점」에서도 해연의 일러스트 속에서 '남들과 다른 지느러미'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미아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얼어붙은 잠'에 빠지는 결말을 맞이한다.

17 김멜라, 『적어도 두 번』, 자음과모음, 2020, 97쪽.

다. 거대한 빙하가 내 가슴에 거꾸로 박혀 그 어떤 빛이 와도 녹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도 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 아빠가 죽고 엄마도 떠났겠지. 밤새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흘렀다. 나는 콧물 훌쩍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으로만 숨을 쉬며 내 운명의 빙하에 갇혔다.[18]

'집안 말아먹을 팔자'라는 무당의 저주는 홍주의 태생과 아버지의 죽음·어머니의 재혼이라는 사건 사이의 인과(因果)를 전제한다. 할머니는 사주를 통해 홍주의 태생을 가족의 불행-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홍주는 '집안을 말아먹을 무언가'로 "내 안의 숨겨진 무언가"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 동질적인 젠더 이분법을 벗어나는 레즈비언 정체성이다. 더 나아가 태어난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홍주가 팔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숨겨진 무언가', 즉 홍주의 섹슈얼리티가 선험적이며 변치 않는 무엇으로 상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애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는 섹슈얼리티를 수행적인 것이 아니라 불변의 것으로 정의하고, 범주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삶이 아닌 것non-life', 더 나아가 주변인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원인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퀴어의 삶을 미래가 없는 것으로 상정하거나 예비된 불행-원인으로 보는 문화적 시각은 이성애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강제적 이성애의 사회는 '좋은 삶'의 이미지-낭만적 사랑과 부부 생활, 가정적 사생활의 이상화-를 이성애 수행과 연결시킴으로써 가족에 대한 윤리적 명령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행복 대본'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불행을 겪으리라는 위협으로 규범을 몸에 각인시키고, 그 규범에 똑바로 맞추도록/이성애자로(straight) 만드는 장치이다. 이때 퀴어의 삶은 행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행의 운명으로 상상된다. 퀴어 아이를 향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은 욕망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시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욕망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로 작동한다. 따라서 퀴어로서의 삶이 불행한 삶과 동일시되는 강제적 이성애의 사회에서 가족 내의 퀴어-자식은 불행의 원인이

18 위의 책, 112-113쪽.

된다. 그 미래는 우울한 삶, 실패한 삶으로 상상됨으로써 가족의 승계에 실패하는 죽음의 운명을 부여받는다.[19]

홍주는 할머니가 믿는 사주팔자의 운명론을 거부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과학의 세계로 도피한다. 홍주가 쓴 「관찰된 작위와 관찰되지 않은 무작위」는 죽음을 공간이자 길로, '찾아오고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한다.[20]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물질(존재)의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은 확률의 차이일 뿐이며 중첩된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불확정성은 무한한 차이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풍부함이자 가능성의 요람이다.[21] 홍주는 확률과 불확정성의 원리에 기반한 '삶과 죽음의 중첩 가능성'을 통해 고전 물리학의 필연성과 절대적 인과라는 결정론을 무너뜨리고, '남들과 다른' 섹슈얼리티를 불행-원인으로 규정하는 할머니의 운명론이자 이성애적(straight) 규범을 해체하려고 시도했다.[22] 그것은 고전 물리학의 필연성과 인과 법칙이 지

---

19 이성애적 삶이 보편 삶의 양식이 되는 사회에서 행복은 상호성의 언어로 강압을 실행하는 형식으로 기능한다. 사라 아메드는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여성과 퀴어의 불행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행복에 대한 욕망을 의무로 전화(轉化)하여 불행을 만들어내는 이성애 규범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163-173쪽 참조.

20 "죽음은 어떤 공간이며 계속 걸으면 다다르는 길이다. 그러니 찾아오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 내 이론의 핵심은 특정 물질의 '있음과 없음'은 단지 확률의 차이이며 모든 것이 '있는 동시에 없다'는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계의 모든 존재는 얼마간 죽어 있는 상태이며 동시에 완전한 죽음은 불가능하다(관찰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김멜라, 앞의 책, 2020, 87-88쪽.

21 양자물리학의 우연성과 확률 개념은 관계의 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한한 차이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사라 아메드는 '우연성contingency'이란 단어와 '접촉하다contact'라는 단어가 '함께com'라는 뜻과 '만지다tangere'라는 뜻을 담고 있는 'contingere'를 어원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우연성은 타자와 '함께' 있는 것, 타자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의 사회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73쪽.

22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이 이성적 인간/남성 주체를 정초하는 데카르트적 인식론과 뉴턴 물리학의 재현주의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서구 인식론의 기초를 뒤흔든다는 점을 논해왔다. 바라드 또한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전제하는 개별적이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선형적이고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측정될 수 있는 고정된 체계라는 점에서 서구 제

배하는 세계를 탈주하여 급진적으로 열린 미래를 열어젖히고자 했던 홍주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닥터 파이팅'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은 태어난 날짜에 따라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주의 운명론을 닮아있다.[23] 때문에 결정론적 운명을 부정하고자 하는 홍주의 시도는 고전 물리학을 전공하는 지도교수들에게 부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된다.

모든 것을 '말아먹는' 물로 가득한 자신의 사주를 떠올리며 좌절해 있던 홍주는 레사를 만난다. '레즈비언 사주팔자'를 보는 레사는 홍주가 그동안 보아 왔던 사주 해석을 부정한다. 홍주에게 '남자 복이 많다'고 했던 은하수 철학관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사주풀이는 이성애와 재생산적 가치를 '복'으로 간주하는 '정상성'에 기반해 있다. 레사는 홍주가 점지받았다는 '집안을 말아먹는 운명'을 부정한다. 사주팔자 명리학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성찰이고 수양이지 남에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며, 오히려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는 윤리적 실천이라는 것이 레사의 해석이다. 이때 사주는 더 이상 홍주에게 불행한 운명을 나타내는 '법칙'이 되지 못한다. 사주는 만남의 계기이자 공통된 화제, 둘 사이의 소통의 매체이자 놀잇거리에 가깝다.

김멜라는 우연성에 기반한 관계적 존재론이 자아낼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의 지평을 제시한다. 확률과 우연성의 원리에 기초한 세계에서 물질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상호 불가분성의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 의해 구성되며 변화한다. 결국 필연적 운명을 부정하기 위한 홍주의 '삶과 죽음의 중첩 가능성'이 담지하는 확률과 우연성의 세계는 관계 속에서의 수행을 중시하는 레사의 '레즈비언 사주팔자'와 맞닿는다. 레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그게 모여

국주의와 식민주의와 연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신현, 앞의 책, 10쪽; Karen Barad, *op.cit.*, p.65.

23 할머니가 신봉한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따라 평생의 운명이 정해지며, 이것은 "예수가 오든 부처가 오든 (…)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결정론적 운명론이다. 김멜라, 앞의 책, 2020, 98쪽.

사주팔자가 된다"는 수행성과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는 윤리적 상호구성의 세계를 이야기한다.[24]

아이를 미래의 표상으로 간주하는 이성애 재생산 미래주의는 퀴어를 '미래가 없는 삶', 즉 '삶이 아닌 것', 가족-불행의 씨앗으로 낙인찍는다. 그것은 가족의 시간, 선형적 진보의 시간을 보편화하여 오로지 하나의 시간성만을 인정하는 '정상성'의 기율이다. 이에 반해 퀴어의 시간은 재생산을 특권화하고 비생산적 삶과 순간들을 저평가하는 생애 경로에 도전한다. 따라서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규범적 시간성을 위반하고 탈주하는 삶은 퀴어의 시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선형적 흐름을 거스르며 비규범적 관계 안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관계적 존재론은 이성애·비장애·남성·가족 중심의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재생산 미래주의의 시간을 퀴어화한다.

그것은 '미래'를 재생산이 아닌 수행과 관계의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급진적 열림의 가능성이다.[25] '레즈비언 사주'라는 퀴어 관계학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를 가정하고 진보적인 하나의 시간성만을 인정해온 서구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을 부정한다. 레사가 말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수행'은 홍주의 죽음관과 만난다. 죽음이 어떤 공간이어서 계속 걸으면 나오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필시 타자와 함께 걷는 길이다. '죽음을 향해 함께 걷는' 홍주와 레사의 동반자적 관계는 퀴어의 삶과 죽음을 '애도가 불가능한/애도해선 안 되는' 것으로 비체화함으로써 퀴어들의 "삶과 죽음에 걸쳐서 동행할 권리"[26]를 박탈하는 이성애 매트릭스의 기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홍주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운명론은 천천히 녹아내릴 수 있는 것

24 위의 책, 125쪽.

25 러브(Heather Love), 무뇨스(José Esteban Muñoz), 케이퍼(Alsion Kafer)는 에델만의 미래주의와 퀴어 부정성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앨리슨 케이퍼는 에델만의 '아이'가 표상하는 바는 건강한-백인-중산층-시스젠더-이성애자-비장애인 중심의 미래주의이므로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백종륜, 앞의 글, 155-156쪽에서 재인용.

26 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애도의 정치: 퀴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39, no.3, 한국여성학회, 2023, 143쪽.

이다.

홍주는 자신을 속박해온 할머니의 결정론적 운명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이성애적/선형적(straight) 시간을 탈주한다. 퀴어 정체성에 대한 비관적 운명론은 더 이상 홍주를 사로잡지 못한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퀴어한 관계의 수행이 열어젖히는 새로운 윤리학으로, 퀴어들이 자아내는 대안적 시간은 하나의 진보적 미래만을 보편화하는 근대적 시간을 무화한다.

3 기억-유령의 현존과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

김멜라의 유령은 최근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유령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그려지며, 이전 세대의 유령과도 변별되는 존재다. 김멜라의 유령은 죽음을 경험한 적 없거나 죽음과는 다른 의미적 층위를 나타내는 유령적 존재들[27]보다는 과거에 죽음을 경험한 존재라는 점에서 차라리 이전 세대의 유령을 닮아있다. 유령은 등장하는 순간 과거-현재-미래의 선형적 구분을 무화한다. 과거로부터 되돌아온 존재인 유령은 지금-여기에 현존함으로써 과거를 현재화하는 동시에 더 이상 늙지도 변화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래적 시간을 연장된 현재로 환원한다.

문학에서 유령의 형상은 타자의 현존이거나 그 재현으로서 우리에게 망각된 기억, 애도되지 못한 죽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였다. 남성/인간 중심의 세계는 여성/타자의 죽음을 망각하고, 비가시화하고, 지워버린다. 「모여있는 녹색점」은 강투와 해연이라는 이성애 부부와 그 관계 사이를 부유하는 미아의 관계를 통해 애도되지 못한 퀴어의 죽음과 그를 망각하는 이성애-남성의 구도를 드러낸다. 결국 미아는 유령으로 귀환함으로써 해연의 애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애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28] 또한 미

27 이희우, 「멸망보다 긴-김지연, 나푸름, 임선우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유령들」, 『문학들』 2022년 겨울호(제70호), 2022.11 참조.

28 라캉은 “불충분한 애도”(insufficient mourning) 때문에 유령이 되돌아온다고 대답했고, 데리다는 유령의 특성에 주목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귀신/다시 돌아오는 것’(revenant)으로 설명한다. 유령은 “현존과 비현존, 현실성과 비현실성, 생명과 비생명 사이의 대립”을 허문다. 데리다는 유령을 통해 전통적 형이상

아가 유령으로 되돌아온 공간이 다름 아닌 미아의 침실이라는 점, 해연이 불면증을 겪으며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존과 비현존, 실재와 비실재, 현실과 꿈, 삶과 죽음 등의 이분법을 교란한다.

죽은 자의 시선에서 서술되는 「논리」는 유령이 시간의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나'는 선형적 시간으로부터 탈구된 존재로 묘사된다. 자신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사고 이후 사고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시간 감각에 이상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는 시간관념이 흐려지고,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으며,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사고 트라우마와 손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자꾸만 잠이 들면서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29]에서 눈을 뜨고, 꿈속에서 사고의 순간을 회상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듯 '나'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선형적 시간으로부터의 이탈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딸 엘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논리」에서 '나'의 죽음은 바디우적인 의미에서 '사건'[30]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사고는 '나'가 옳다고 믿던 법칙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이자, 선형적 시간을 벗어나 유령의 시간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나'가 경험하는 '이상한 시간성'은 과거/현재/미래를 구분하는 선형적 시간의 경계를 흐트러트린다. 그리고 일직선의(straight)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죽은 자의 시간성

학의 존재론(ontology)을 유령론(hauntology)로 대체하고자 한다. 경계를 허무는 유령의 특성은 서구 문화 전통의 계층구조를 전복시키고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선, 「애도와 유령: 유령으로서의 문학」, 『비평과이론』 Vol.24 No.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35-37쪽.

29 김멜라,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183쪽.

30 바디우가 설명하는 '사건(occurrence)'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것", "상황과 체계의 모든 정규적 법칙 바깥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발명하도록 구속하는 어떤 '잉여'의 것",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체제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가리킨다. 알랭 바디우, 이종영 역, 『윤리학』, 동문선, 2001, 54쪽; 신수정,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유령 화자의 의미-윤성희·황정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2호(통권 제46호), 2019, 9쪽에서 재인용.

을 통해 '나'는 엘리가 퀴어로서 관계를 맺고 치유되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엘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엘리가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엘리의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한다.

그런데 '나'가 경험하는 '이상한 시간성'의 양태는 회상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나'에게 미래로 가 닿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31] '나'는 선형적 시간이자 인과라는 "인간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이미 '가 닿을' 수 있다.[32] 때문에 '나'는 '나'는 사고 이전의 과거부터 사고의 순간, 자신이 죽은 후 엘리가 상실의 슬픔을 겪는 모습, 그 슬픔을 극복한 후의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경험하며 선형적 시간의 구분 자체를 무화한다. 자신이 믿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엘리가 나아갈, 이전과는 다른 '미래'의 시간을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Learn. 배울게. 엄마도 공부할게.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 보여줄게. 내가 귀신인지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가거나 환상처럼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 허공에 단추를 들어올리거나 벽을 통과할 수도 있을 거야. 아직은 새나 나무 이름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엄마도 배울게. 너의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공부할게. (...) Lesbian. 네가 뭐라고 불리든 너와 너의 연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 당분간 천국에 갈 시간은 없겠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아 있을 때 뭐가 중요한지, 삶과 죽음,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믿는 그 사이에

31 "잠들기 전의 오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루가 흘러 다시 낮이 된 건지 모르겠다. 오늘이 며칠일까. 날짜를 헤아려보지만 흐릿한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처럼 생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 내 의식이 이미 먼 미래에 가 있어 지금 이 순간을 어렴풋이 회상하는 것 같달까." 김멜라, 앞의 책, 2022, 186쪽.

32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나 같은 상황이 바로 기적이고 신비지. 나는 인간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어온 세상의 법칙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것을 이 사고를 통해 배웠다." 위의 책, 180; 182쪽.

어떤 힘이 있어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해주는지. 어떤 논리도 너에게서 기적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33]

「논리」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연결이 존재하며, 그를 통해 죽은 자도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독특한 유령적 존재론을 이야기한다. '나'가 유령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은 유령을 과거로부터 '되돌아온 자'로 상상하는 문화적 표상을 벗어난다. '나'는 이전까지 알지 못하던 새와 식물의 이름을 알게 되는 식으로 죽음 이후 '앎'의 지평이 넓어지고, 엘리를 위해 '배움'을 다짐하는 등 변화에 열린 존재로 묘사된다. 그것은 과거를 현재화할 뿐 변치 않는 존재이기에 미래의 시간이 부재한 유령(specter)의 형상과는 달리, 닫혀 있는 선형적 시간의 경계를 열어젖히는 존재다.

'나'를 현실에 정박시키는 닻은 '나'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엘리의 존재다. 엘리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으며 상실의 아픔에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사고의 흔적은 엘리의 몸에 흉터로 남고, 엘리는 '나'의 옷을 입으며 '나'를 기억하려고 시도한다. '나'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자해하는 엘리의 모습을 지켜보지만 동시에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인 엘리의 미래를 관측한다. 우리는 기억-회상 또는 꿈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타자를 환대하고, 상대의 흔적이 살아 있도록 만든다.[34] 아이였던 엘리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미래로 나아간다. 엘리가 흉터를 지우지 않고 남겨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엄마와의 기억-흔적 또한 엘리의 물질적 신체에 남겨져 있다.[35] 하지만 엘리가 나아갈 '미래'는 본래 '나'가 상상했던 엘리의 미래와는 다를 것임을, 엘리가 '내가 모르는 곳'에 가 닿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유령의 존재론은 과거를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선형적 시간의 개념을 전복시킨다.[36] 바라드의 관계적 존재론

33 위의 책, 204쪽.

34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023, 344-345쪽.

35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 엘사처럼 네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 김멜라, 앞의 책, 2022, 203쪽.

36 Karen Barad, *op.cit.*, p.56-57.

에 따르면, 세계는 언제나 생성 중이며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언제나 '우리'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생성 중인 세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상호작용하므로 과거-현재-미래는 상호적으로 구성된다.[37] 과거를 종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과거-현재-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에 따라 존재의 윤리적 응답의 책임을 요청한다.[38] 때문에 '나'가 이성애 중심적 가치로부터 벗어나고, 새와 식물의 이름을 알게 되는 '배움'은 '인간'의 진보를 필연적으로 여기는 식민주의적 시간관에 급진적인 '열림'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호구성적 관계-존재론에 윤리적으로 응답하는 실천으로 의미화된다.

「제 꿈 꾸세요」는 「논리」와 유령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한다. 김멜라는 죽은 자를 '걷는' 행위를 수행하는 '길손'으로, 죽는다는 말 대신 '깨어난다'고 표현함으로써 죽음의 시공간을 삶의 의미망과 연결시킨다. 이는 『적어도 두 번』에 실린 「물질계」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묘사를 연상시킨다. 죽음을 공간이자 길로 묘사하는 김멜라의 상상력은 죽음을 단절된 사건이 아닌 '삶 이후'에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파악한다. 김멜라가 그려내는 죽은 자들은 산 자와 똑같이 감정과 감각을 느낀다. 그들은 삶 이후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깨어난' 존재들이며, 따라서 죽지도 살지도 않은 '유령'이 아니라 '삶 이후'로 이어지는 죽음이라는 길을 걷는 '길손'들이다. 김멜라는 이 길손들의 발걸음을 통해 죽음 이후의 풍

37 박신현은 바라드의 '윤리-존재-인식-론'에 대해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언제나 '우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이루는 생성의 활발한 관계성에 대한 책임과 책무로서의 윤리로 설명한다. 우리의 내부-작용은 우리가 아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에 내부-작용에는 '앎의 윤리'가 요구된다. 책임은 자아와 타자, 여기와 거기, 지금과 그때의 얽힘에 대한 계속되는 응답을 동반한다. 우리는 매 순간을 만나는 것, 생성의 가능성들에 민감해야 한다. 박신현, 앞의 책, 45-48쪽.

38 프로이트는 애도를 잃어버린 대상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상실을 마주하는 건강한 반응으로, 이에 반해 잃어버린 대상을 자아 안에 남겨놓는 멜랑콜리아는 병리적인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사라 아메드는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는 일이 "잃어버린 대상에게 계속해서 전념함으로써 타자가, 그리고 타자와 함께 과거가 현재에도 살아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상실을 마주하는 윤리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대상이 주체 안에 남겨져 있을 때, "대상은 역사에서 단절되지도, 소수만 알 수 있게 감춰지지도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획득"한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023, 343쪽.

경을 다시 그린다.

「제 꿈 꾸세요」의 '나'는 가곡 〈메기의 추억〉와 〈오 수재너〉를 통해 길손의 존재양식을 '떠남'의 감각으로 묘사한다. 떠나온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하는 두 곡은 이미 죽은 자인 화자의 처지와 공명한다.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금잔디 동산에/메기/로 이어지는 노래처럼, 마디 바꿈도 없이 나를 둘러싼 리듬이 일시에 다른 흐름으로 전환되는 느낌"이라 묘사한다. "높은 벼랑에서 별안간 훅 떨어지는 듯한 노래의 낙차"[39]에도 불구하고 〈메기의 추억〉은 리듬이 다른 흐름으로 전환될 뿐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듯이, 죽음은 단절의 사건이 아니라 '삶 이후'로 접어들게 되는 다른 층위의 시공간이다. 이는 죽음 역시 물질성의 변화일 뿐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중첩된 삶-죽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유령의 물질성은 삶과 죽음의 연결,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타자의 흔적이 물질적 신체에 남음으로써 '나'와 타자의 연루됨을 드러낸다. 「논리」에서 '나'는 산 자와 다름없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선형적 시간으로부터 '탈구'된 존재의 양식을 감각한다.[40] 마찬가지로 「제 꿈 꾸세요」에서도 죽음은 물질의 형질 변화 또는 물질의 이동으로 묘사된다. 「물질계」에서 홍주가 이야기했던 '삶과 죽음의 중첩 가능성'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의 중첩된 가능성을 확률로 가진다. 양자장론에서 물질은 언제나 타자와 얽혀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역시 물질이라는 차원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산 자와 죽은 자는 물질적-담론적으로 얽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령으로서 '나'의 존재는 죽음을 비가역적인 단절이자 유한성으로 이해하는 삶/죽음의 이원론을 부정한다. 즉, 불확정성의 역동성으로 가득 찬 유령의 영역은 과거-현재-미래의 무수한 가능성과 상상들이 공존하는 상태이자 삶과 죽음의 대립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능성의 열림을

39 김멜라, 앞의 책, 2022, 264쪽.

40 "어깨와 팔에 소름이 돋는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느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도 이렇다니, 벌레에 물린 것처럼 종아리가 가렵고 콧물이 흐르다니. 죽어서도 이렇게 울 수 있다니." 김멜라, 앞의 책, 2022, 200쪽.

의미한다.[41]

서로 다른 노래에 사는 메기와 수재나가 함께 '아름다운 베르네'로 떠난다는 '나'의 상상은 밴조를 메고 찾아온 '챔바'에 의해 실현된다. 길손을 인도하는 가이드인 챔바는 길손이 '깨어난' 후엔 산 자의 꿈으로 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하거나 생전에 (좋아)하던 일을 계속한다고 한다. 이제 둘은 함께 산 자의 꿈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 길의 목적은 '나'의 육신이 부패하고 훼손되기 전에 발견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다.[42] '나'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해달라는 부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립됐고", "누구도 나의 안녕을 궁금해하지 않는" '나'의 죽음은 고독하고 쓸쓸하다.

'나'가 자신의 죽음이 자살로 오해될 것을 걱정하여 "내 죽음의 경위와 삶의 이력을 오해 없이 완결"하기를 바랐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혼자 사는 삼십대 무직 여성'이라는 삶의 조건, 평소 앓던 우울증과 고립된 인간관계, 성 정체성 등의 요인을 죽음의 인과로 구성하는 정상성의 규범을 강화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나'의 죽음을 알게 된 세모가 "자기랑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런 성향의 사람은 결국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나'의 걱정이 이를 나타낸다.

---

41 바라드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존재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 나아가 비결정성(indeterminacy),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라드에게 무(nothingness)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풍부함이자, 유령 같은 존재가 있는 유령적인 비/존재의 영역이다. 그리고 존재론적 비결정성은 무한한 개방성 안 모든 구조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 존재하는 모든 것-존재를 탄생시키는 역동성을 품은 자궁이다. 따라서 비/존재-유령-비결정성은 곧 모든 물질화의 조건, 급진적 개방성과 무한성의 잠재성을 나타낸다. 박신현, 앞의 책, 84-88쪽; 바라드의 공허(the void)와 비결정성에 대한 사유는 Karen Barad, *op.cit.*, p.76-80 참조.

42 김멜라는 첫 번째 단편집에 실린 「홍이」에서도 '우편물'이나 '자동이체되는 공과금'은 고독사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하는 소재로 사용한 바 있다. 사망한 할머니의 시신이 몇 달이나 지나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는 「홍이」의 사건은 마찬가지로 고독한 죽음, 비가시화된 죽음을 맞은 「제 꿈 꾸세요」의 '나'가 죽자마자 떠올린 것이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꿈에 나타나 하고자 한 부탁이 시신의 발견이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하지만 '나'는 챔바와 대화한 끝에 자신의 죽음에 얽힌 오해를 푸는 대신 "판단 이전의 괄호"[43]로 남기로 결정한다. 챔바는 "세상 어디에도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44]듯이, 이들의 죽음 또한 애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길손들의 죽음을 '괄호'로 놔둔다는 말의 의미는 고립된 죽음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이들의 삶과 죽음에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부여함으로써 애도를 박탈하는 규범 권력의 작동을 질문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길손의 존재론은 규범 권력이 특정 삶과 죽음을 보편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범주를 구성하고 판별하는 생명-죽음 정치를 정지시키는 '괄호'를 요청한다. 길손들이 대부분 '스스로 플러그를 뽑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45], 그들의 죽음을 "판단 이전의 괄호"로 놔두겠다는 언명은 이들의 삶과 죽음을 지우고 애도를 박탈하는 규범 권력에 저항하는 윤리적 응답으로써 기억하기(re-member-ing)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남겨진 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기를 소망한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어났을 때 웃게 되는 꿈을 꾸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나'와 엄마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삼각뿔의 형태를 이루며 교차[46]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은 기억과 그

43 김멜라, 앞의 책, 2022, 272쪽.

44 위의 책, 282쪽.

45 챔바는 고흐, 버지니아 울프, 전혜린, 들뢰즈, 장국영을 '유명한' 길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깨어났다는 건 스스로 플러그를 뽑았다는 뜻이었다. 아닌가, 죽을 때 혼자여서 세상에 그 죽음을 알릴 사람이 없는 경우인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누구나 죽으면 길손이 되나. (…) "기준이 있어요." (…) "슬퍼한 사람."" 위의 책, 281-282쪽.

46 이때 '나'와 엄마, 챔바의 마음이 '삼각뿔'의 형태로 교차하는 것은 기억과 물질에 대한 베르그송의 역원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베르그송은 '역원뿔'의 형상을 통해 기억이 물질화되어 과거가 현재로 나타나는 창조적인 생성의 원리를 설명한 바 있다.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기억은 인간 본질의 존재론적인 영역에 속한다. 베르그송에게 현재는 과거의 지속이자 과거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창조다. 이때 과거는 기억을 통해 보존되는데, 지속적으로 순수하게 보존되는 과거를 '순수 기억', 순수 기억이 현재의 이미지로 현실화한 것을 '기억-이미지'라고 불렀다. 우리의 몸은 몸을 둘러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과 작용, 반작용하며 순수 기억들을 현재로 불러낸다. 즉 '순수 기억'은 몸을 통해 현실화되는데, 이

기억에 동반되는 정동을 통해 형성된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 안에서 신체의 반응을 동반함으로써 현재의 시간으로 침투한다.[47] 함께 맛있는 것을 먹던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들렌을 먹는 장면처럼 음식이 서로 함께했던 기억,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내가 기억하는 기쁨", 행복했던 기억을 불러내는 까닭이다. 기억을 통해 산 자는 죽은 자를 추억하고, 현재의 시간에 끊임없이 재소환한다. 내 물질적 신체에 얽혀 있는 타자의 흔적을 기억-회상하는 일은 나와 얽힌 타자, 떠나간 이를 애도하는 윤리적 실천이 된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 어떤 삶을 삶으로 인정하고 그에 반해 어떤 삶을 애도받지 못할 삶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일이자, 떠나보낸 이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 쉬게 하는 일이 된다. 거듭해서 실패하는 애도는 역설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지, 기억을 통해 잃어버린 대상을 지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그가 내 안에 살아 숨 쉬게 만든다. 죽어서 떠나간 사람이 있더라도, "노래가 끝나도 혀끝에 맴도는 멜로디"처럼 "죽어서도 죽지 않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떠나간 이를 기억하는 산 자들에 의해서 연결은 이어진다.[48] 그럼으로써 죽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이들이 살아 있도록 만드는 일이 된다. 이를 통해 죽은 자인 길손들은 삶과 죽음 사이를 부유하는 무기력한 유령의 형상이 아니라, 삶-죽

는 곧 우리가 기억을 통해 과거를 몸에 체현한다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속으로서의 시간은 현재 속에서 과거를 연결해주는 기억의 연속적인 삶을 가리키며, 기억 이미지의 형태로 의식 속에 현실화되어 현재의 지각 경험으로 나타나는 비결정적 시간성, 즉 지속을 통해 형성된다. 앙리 베르그송, 『물질과 기억』, 박종원 옮김, 아카넷, 2005, 116-147쪽 참조.

47 마수미는 정동이 "대상과 타자외의 마주침"을 통해서 나타나며, 기억도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동과 함께 현재 시간에 공존한다고 설명한다. 이때 정동은 "과거-현재-미래의 경계를 해체해 시간의 진리를 무화시킨다. 정동은 기억의 양태에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움직이는 생성 그 자체로 기억과 함께 매순간 변한다."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8; 김민지, 「정동의 잉여적 사유들-브라이언 마수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6호, 한국동서철학회, 2020, 271쪽; 278쪽에서 재인용.

48 김멜라, 앞의 책, 2022, 288쪽.

음의 시간성에서 산 자와 연결된 존재, 고립된 죽음과 박탈당한 애도를 만들어내는 규범 권력을 정지시키는 사이-'괄호'의 시공간을 열어젖힌다. 죽은 자는 과거의 현존이자 미래의 존재로서 산 자와 연결되고, 둘 사이의 연결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로의 열림의 가능성, 삶과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김멜라는 길손의 존재를 통해 타자와의 연결을 이야기한다. 유령의 시선에서 남겨진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제 꿈 꾸세요」의 서사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이 존재함을, 우리 안에 타자의 흔적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남겨진 이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자를 향한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멜라는 기억-회상의 반복적인 수행을 내 안에 남아 있는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발생하는 윤리적 사건으로 의미화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기억에 사로잡힌 이들. 슬픔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 이들은 멜랑콜리아를 품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데 끊임없이 슬퍼하며 과거를 현재화하는 이들이다. 김멜라는 상실의 슬픔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타자의 흔적-이미지와 기억에 귀를 기울일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들과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애도가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으로 주어져 있음을 역설한다. 과거-현재-미래를 구분하고 선형적 진보만을 하나의 보편으로 인정하는 시간성은 해체되고,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삶-죽음으로 중첩된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삶'은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형태로 재의미화된다.

4 무덤 속의 삶,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

유령은 선형적이고 역사적인 시간(Chronos)의 틈새를 틈입하여 교란한다. 상실의 슬픔에 몸부림치는 이는 몸의 흔적을 통해서 죽은 자와 연결되고 과거가 지나가버린 것이 아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호구성적으로 얽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선형적 시간을 탈주하는 죽은 자의 시간성은 어떤 식으로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죽은 자의 흔적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은 산 자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다르게 사유하고 삶의 다른 방식을 실험할 수 있게

되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의 해체는 죽음과 함께하는 삶, 이전과는 방식의 삶과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토대가 된다. 「코끼리코」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작품이다.

「코끼리코」의 화자 종미(202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세 형제의 가사와 돌봄노동을 전담해온 끝에 피부 병변과 허리 통증을 얻고 쓰러진다. 공/사 영역을 범주화하고 여성의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돌봄과 가사노동을 전담시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규범은 여성의 신체에 각인된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요의를 참아야만 했던 경험에 종미는 자기 자신이 '버둥거리는 벌레'가 되었다고 느낀다. 이 비체화된 감각의 경험은 종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에 접어들게 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종미는 쓰러진 이후에도 일을 쉬지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 종미를 행동과 생각을 규율하는 것은 "젊으니까, 출근해야 하니까, 남들도 이 정도 통증은 안고 산다"는 주류적 시간의 논리, 특히 건강한 신체를 젊은 연령에 맞는 보편으로 삼고 통증마저 평가 규준을 '남들'에 맞추는 자본주의의 시간적 요구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요구는 노동자의 몸을 가로지르며 시간을 압축하고, 조직화하고, 위계화한다.[49] 질병이나 장애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 만성질환자를 비가시화하는 사회, 생산성과 속도를 중시하고 건강을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에서 건강함의 기준에서 탈락한 몸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몸으로 취급된다. 이처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규율하는 이성애적(straight) 시간성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생애주기와 함께 작동한다. 종미의 처지는 사회의 '정상성'을 규범화하는 시간 통치술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에도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 아픈 사람이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종미의 가정은 가부장제의 젠더 윤리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젠더 규범에 따른 행동 양식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신체

49 자본주의는 시간을 주조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규범적 생애주기에 포섭된 시간의식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계산적 합리성으로 번역한다. 황규성, 「사회적 시간체제 개념의 재구성: 생활세계의 시간에 관한 이론적 탐색」, 『시민과세계』 통권 제38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170-171쪽.

적·정신적 에너지마저 착취하고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구조 안에서 생산의 기본 단위로 설정된 이성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은 공과 사,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이분화한다. 이때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은 '생산적 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비가시화되며, 남성이 여성의 정서적 에너지와 가사/돌봄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50] 종미의 고질적인 수줍음은 '혁'자 돌림이었던 오빠들과 달리 여자라는 이유로 '아름다울 미(美)'를 넣은 예스러운 이름 때문에 학습된 것이다.[51] 종미에게 "다리 좀 모으고 앉"으라고 젠더화된 행동 규범을 강요하는 오빠들의 태도는 아버지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 종미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규범으로서 종미의 '착한' 성격은 자본주의의 생애주기와 결부되어 여성의 통증과 손상, 비명을 비가시화하기 위한 가부장제의 통치술을 나타낸다.

가족 내의 여성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가부장제의 권력은 재산 분배의 과정에서도 여성을 배제한다. 이 지점에서 종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비체로 감각한다. 이때 종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가부장제로부터 얻은 통증과 손상, 그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저항한다. 종미의 몸은 가시화된 통증과 손상으로 인해 삶보다 죽음에 가까운 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종미가 통증과 손상으로 얼룩덜룩한 몸, 죽음을 의미하는 비체화된 몸을 전시하는 행위는 죽음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미래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여기는 건강과 시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거스른다. 착취의 구조로부터 '탈주하기'는 질병과 손상, 죽음을 품은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

> 202호는 로브를 걷어올려 팔뚝에 난 갈색 반점을 오빠들에게 보여주었다. 주근깨도 아니고 검버섯도 아닌, 부식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처

50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25-127쪽; 135-137쪽; 김건형, 「얼어붙은 결정론적 세계를 깨뜨리는 방정식」, 『적어도 두 번』, 자음과모음, 2020, 264쪽에서 재인용.

51 김멜라는 별명을 통해 기성 언어에 존재하는 권력을 지우거나 역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종미의 이름 역시 여성에게는 돌림자를 주지 않는 한국의 가부장 문화의 결과물이다.

> 럼 붉은빛을 띤 거무튀튀한 무정형의 얼룩이 그녀의 몸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202호는 어떤 옷을 입어도 피부가 따갑고 이물감이 들어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건 삼베로 만든 수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며 여기 한가운데 끈적하고 미끄덩한 고름이 찬 것처럼 갑갑하다고, 속은 늘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편히 누워 잘 수도 없다고, 몸 여기저기를 짚어가며 말했다.[52]

통증과 손상으로 얼룩진 종미의 몸은 예정된 죽음의 미래를 가시화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노정하는 재생산-미래주의적 권력에 정지를 요청한다. "주근깨도 아니고 검버섯도 아닌, 부식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처럼 붉은빛을 띤 거무튀튀한 무정형의 얼룩"과 "불그죽죽한 화상자국"은 "어머니 없는 집에서 유일한 여자로 살아온 자신의 처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종미가 살아오며 겪은 고통의 시간이 체현된 신체는 오빠들 앞에서 '여자애'에게 금기시되던 '험한 말'을 내뱉고 아버지의 유산을 쟁취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때 "아들이니 딸이니 따지지 말고, 나아가 부양가족 같은 조건도 내려놓고, 넷이서 공평하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갖자"[53]는 종미의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이성애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가족 상속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핵가족은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의 축적과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강제적 미래주의는 상속자로서의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전제한다. 규범적 시간성의 주요 표지인 '임신-출산-육아'를 수행하지 않은 종미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가족 제도가 노정하는 재생산 미래주의, 그리고 남성 주체의 가부장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종미의 아픈 몸은 미래주의의 시간성을 부정한다. 종미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 종미가 원한 것은 '자신만의 무덤'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죽어가는' 역설적인 삶이다. 이는 종미가 병명도 알 수 없는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며 유예되고, 불확실해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신 오

52 김멜라, 앞의 책, 2022, 234쪽.

53 위의 책, 244쪽.

로지 '여기, 현재, 지금'에 집중하기를 선택한 것이다.[54] 종미는 '202호'라는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재생산 미래주의로부터 벗어나 병마와 함께 지금-현재를 살아가는 퀴어의 시간을 살기 시작한다.

종미는 병명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며 유예된 현재를 살아가는 대신 지금-여기에 집중하기를 선택하고, 주류적 시간성으로부터 벗어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고 죽어가는 퀴어한 시간을 살기 시작한다. "편히 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결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선형적이고 발전론적인 규범적 생애주기로부터 이탈하는 퀴어적 실천이 된다.[55] 생애주기의 장소인 가족을 떠나 죽음을 준비하는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를 얻게 된 것이다. 보편적 삶을 표상하는 이성애 가부장제·자본주의의 시간성이 가사와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 퀴어한 삶의 방식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안적 시간을 열어젖히고 규범적 '삶'의 착취적 구조를 탈주할 수 있게 된다.[56] 그것은 혈연으로 얽힌 직계 가족의 착취적

54 가족, 이성애, 재생산 제도로 대표되는 규범적 시간성은 자본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부르주아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가족과 재생산을 중시하는 시간 규범은 이성애자와 비장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부르주아적 재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은 미성숙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앨리슨 케이퍼는 질병과 장애, 다양한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직선의straight' 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때 '일직선straight'에는 '이성애의'라는 의미도 포함되듯, 일직선의 시간이라는 말은 과거/현재/미래의 확고한 구분을 표현하는 것이자 이성애-재생산 중심의 규범적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규범적 생애주기는 장수를 가장 바람직한 미래로 내세우고, 장기적이고 안정된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며, 장수에 관심이 없는 삶의 방식을 병리화한다. 앨리슨 케이퍼, 앞의 책, 119쪽.

55 엘런 새뮤얼스는 저항적 지향으로서 불구의 시간이 가진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몸, 시간을 가로지르는 경제적 요구의 엄격함을 거부하는 일은 곧 공적인 시간과 사회적인 관계의 모습을 재상상하는 "특이한 경제적 실천"으로서 생산성, 성취도, 효율성 등 시간을 정의하는 규범적 양식에 도전하고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의 책, 118쪽.

56 핼버스탬에 따르면 주류의 시간적 논리란 "죽음, 진단,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미래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논리다. 대신 퀴어의 시간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현재의 긴급함을 발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거두게 한다. 핼버스탬은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버려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 돌봄관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기돌봄을 선택하는 일이자, 진보주의적이고 미래 중심의 선형적 시간성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때 자기돌봄의 실천은 미래에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는 행위로 의미화된다.[57]

종미는 삶의 장소인 가족을 떠나 죽음의 장소인 무덤으로 들어가서야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를 얻는다. 규범적 생애주기는 종미를 비체의 형상으로 추방하지만, 종미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시간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기존의 체제를 거부하고 재생산 및 가족의 시간 밖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대안적 시간성이다. 삶과 죽음의 의미는 전치되고, 죽음의 장소인 무덤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

가족을 떠난 종미는 비로소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 '아름다운 끝(終美)'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202호'로 살아간다. 202호는 낡고 허름한 개나리맨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202호의 처지와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끼는데,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는 무덤'인 개나리맨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장소이자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202호가 선택한 '무덤'은 주방과 생활의 공간을 벽을 통해 구분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호의 공간은 여성에게 가사·돌봄노동을 전담시키는 '스위트 홈'도, 사무실도 아닌 "이쪽과 저쪽을 섞어놓은 실험적인 은신처"[58]로서 공과 사의 경계를 무화한다. 이 사이-공간에서 202호는 하루하루 죽음을 실천('하루하루 잘 죽기')하며 행복을 느낀다. 역설적으로 무덤은 삶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고, 죽음은 자유를 부여하며 생명이 약동하는 계기가 된다. 이곳은 도시의 동과 서, 높다랗게 솟은 신축 아파트 사이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한 묘지, 빠르게 흘러가는 자본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 및 생산 논리의 가장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 및 가족의 시간 밖에서 살아가는 파티광, 클럽 죽돌이, HIV양성 판정을 받고 콘돔 없이 섹스하는 사람, 남창, 성노동자, 홈리스, 약물 거래자, 실업자들 역시 '퀴어 주체'로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106-107쪽.

57 위의 책, 115-116쪽.

58 김멜라, 앞의 책, 2022, 241쪽.

주의적 시간의 속도로부터 탈구된 헤테로토피아[59]다.

>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 / 202호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옷을 세탁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시간을 견디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202호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 잘 죽고 있어. / 낮에도 밤에도. 나는 죽는 걸 목표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 있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60]

그런데 202호의 '잘 죽기'가 성립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202호의 무덤이 위치한 '개나리맨션'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이 있다. 202호는 개나리맨션을 본 순간 엄마가 살아 있을 때 함께 살던 맨션,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떠올린다. 사진의 이미지-기억을 통해 개나리맨션은 엄마와의 행복했던 순간을 현재로 재소환한다. 이처럼 개나리맨션은 202호의 처지에 대한 은유이자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죽은 자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한 매개체다. 이로써 202호는 죽음을 삶과의 단절이 아니라 엄마와 재회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미래의 시간성으로 재의미화한다. 어머니와의 기억-회상을 통해 202호의 무덤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이 겹쳐진 장소가 된다. 따라서 202호가 선택한 무덤, 생과 사의 경계, 삶-죽음은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한다.

'삶'의 의미에 대한 탈영토화가 일어난 사이-공간에서 202호의 실천은 대문자 남자-인간 주체의 팔루스중심주의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202호의

---

59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화된 유토피아 장소들"인 동시에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종미의 202호는 무덤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감춰지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못한 채 고립"된다. 타자를 배제하는 이성애 규범성과 자본주의적 생애 주기를 탈주하지만, 이성애 규범성은 여전히 202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배제"가 이루어진다. 미셸 푸코, 「다른 공간들」,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 47쪽; 56쪽.

60 김멜라, 앞의 책, 2022, 247쪽.

‘무덤’은 규범 권력의 사이-경계에 위치한 헤테로토피아였기 때문에 방을 벗어난 개나리맨션이라는 공간 자체는 여전히 여성을 사적 공간 안으로 제한하고 여성의 몸을 식민화하는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 202호는 그 모순을 여자 화장실을 침범하고도 되려 202호를 탓하는 남성과 그에 말없이 동조하는 다른 주민들을 통해 깨닫는다. 202호가 사는 개나리맨션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상가 1층은 물건을 팔거나 옷을 세탁하는 등 생산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중년 남성들이 주류라는 점에서 남성의 공간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곳에서 202호는 젊은 여자 혼자 살면서 일도 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로 고립된다. 주변 남성들은 통닭집 남자가 202호를 위협하는 것에 동조하고 202호의 저항 의지를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여태껏” 그래왔듯 “여기 방식에 맞춰” “남자니 여자니 그런거 따지지 말고 인지상정으로 살자”는 언설은 젠더 권력을 비가시화함으로써 남성의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기제를 드러낸다.

‘싸는 문제’는 ‘사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오줌을 사방으로 튀기는 남자의 ‘싸는 자세’는 남성의 해석에 따른 이분법적인 성적 질서를 구성하고 여성의 몸을 식민화하는 ‘사는 자세’와 직결된다. 반면 “여자가 편하게 오줌 싸는 법”은 ‘김밥, 도시락 싸는 법’ 같은 가사노동과 연관되거나 남성의 범죄와 도착의 대상이 될 뿐이다. 앉아 싸지 않고 서서 싸는 남자의 “싸는 자세”는 팔루스의 권위를 빌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타자화하는 “사는 자세”와 연결된다.[61]

202호는 실제 페니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코끼리코 모양의 보철물을 사용해 ‘서서 오줌 누기’라는 남성의 젠더 수행을 패러디한다.[62] 서서 오줌을 누

61 화장실은 소변을 보는 몸을 규율하여 젠더화된 몸으로 생성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젠더 이분법적 지식에 따르면 남성은 다리를 벌리고 소변을 보고,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서 소변을 봐야 한다.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여성의 몸과 그 몸짓은 남성성-팔루스의 거세로 의미화되어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여성이나 남성성이 부족한 남성을 공격하는 언설로 쓰여왔다.

62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여성은 ‘거세된’ 존재로 팔루스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섹슈얼리티도 없는, 그저 결핍되어 텅 빈 존재로 그려진다. 버틀러는 정신분석의 팔루스 중심적 담론을 다르게 수행하는 것을 시도한다. 버틀러는 팔루스가 페니스가 아니라는 라캉의 주장을 토대로 팔루스가 전치 가능한 것이며, 팔루스는 “다양한 기관”이나 더 나아가 “신체와 비슷한 다른 것”에 옮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틀러의 레즈비언 팔루

는 행위는 페니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성 권력의 전유물이다. 반면 '앉아서 싸는 일'은 202호를 비롯한 여성들이 비명을 참아야만 했던 역사, 규범적 생애주기와 젠더 역할에 속박되던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 코끼리코의 사용은 여자도 "다른 방법, 다른 자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63]을 나타낸다. 202호가 코끼리코를 사용해 '서서 오줌 누기'를 수행하는 일은 세 명의 오빠들에게 맞서는 일이자, 여성을 대상화하고 식민화하는 남성의 공간적 질서로부터 탈주하려는 몸의 실천이다. '코끼리코'는 남성의 페니스와 달리 화장실을 더럽히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대안적 팔루스로 훌륭하게 기능한다. 이 페니스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보철물을 통해 202호가 '서서 오줌 누기'를 해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는 결과는 202호가 대안적이고 퀴어적인 수행으로서 훌륭하게 팔루스중심주의를 탈주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02호의 무덤은 삶과 죽음의 사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겹쳐진 다중적 시간의 장소다. 그 안에서 202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통증과 손상의 역사, 가부장제 아래에서 보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잘 죽기'란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02호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통해 자신 이전에 수많은 여성-타자들이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겪어온 역사적 고통과 죽음을 되새긴다. 그렇기 때문에 202호의 '무덤'은 202호를 비롯한 가부장제 내 여성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그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는 일, 스스로를 돌보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자기돌봄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충만함으로 거듭난다.

202호의 경험이 비단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은 「코끼리코」의 마지막, 202호가 '코끼리코'를 사용해 서서 오줌 누기를 수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나타난다. 202호가 직접 꾸민 이 무덤은 "202호

스 개념은 스스로도 인정하듯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지만, 제인 갤럽은 버틀러의 레즈비언 팔루스 개념이 라캉적 기획의 "도중에 개입한, 돌발적인 것"으로서 위협적인 "반(反)이성애 중심주의 성적 상상의 생산"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제인 갤럽, 앞의 책, 40-49쪽.

63 김멜라, 앞의 책, 2022, 256쪽.

가 옮긴 가구, 202호가 걸어놓은 사진, 202호의 손길이 배어 있는 옷과 물건들", 즉 202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64] 나아가 202호가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물건들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202호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타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65] '무덤' 안의 물건들, 어머니와 아버지, 쿠사마 야요이와 명창 안숙선의 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호가 소리내어 웃기 시작할 때[66] 비로소 '코끼리코'의 성공이 일어난다. 쿠시마 야요이는 부드러운 점토나 천을 통해 남성기의 형상을 한 오브제를 조형함으로써 팔루스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한 미술가였고, 명창 안숙선은 '한'의 정서를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소리꾼이었다. 또한 202호에 앞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까지, 여성들의 초상이 202호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호는 코끼리코의 사용을 통한 팔루스중심주의의 패러디를 수행하고, 자기-돌봄을 통해 내 안의 타자들과 만나는 응답을 실천한다. 그것은 죽음을 애도하고 삶과 죽음이 중첩된 몸으로 거듭남으로써 다르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가능성의 열린 미래로 나아가는 무한한 창발이다.

5 결론

대문자 남성을 이성의 보편적 주체로 규정하는 이성애 규범성은 변증법적 이항

64 이때 202호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은 쿠사마 야요이와 안숙선,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상인데, 쿠사마 야요이는 섹슈얼리티를 주요 테마로 딱딱한 소재가 아닌 점토나 천 등 부드러운 소재로 남성 성기-오브제를 만든 예술가이다.

65 우리가 외부의 타자를 만짐으로써 타자와 맺는 관계성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내부의 타자들, 우리 몸을 지나쳐 간 수많은 다른 존재들에 대해 깨닫게 되는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라드는 "자기-만짐은 자신의 무한한 타자성과의 만남 (…) 이러한 자기-만짐 안에서 자기 자신인 무한한 타자성과 접촉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자기 자신'이 시간과 존재를 통해 퍼져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사유하게 된다." 박신현, 앞의 책, 65-66쪽에서 재인용.

66 마수미는 기억이 과거-현재 안에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듯, 타자와의 마주침 속에서 발생한 웃음은 모든 지배의식으로부터 일시적 해방을 맞이하고 타자의 마주침을 통한 순간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한다. 김민지, 앞의 글, 279-283쪽 참조.

대립 구조를 통해 정신/몸, 대문자 남성/대문자 여성, 문명/자연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체계를 구조화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사이의 결합만을 인정하는 젠더 상징체계와 이성애 규범성은 보편에서 벗어나는 타자들의 몸과 삶을 규율하며 생성한다. 김멜라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장애인, 퀴어, 노동자, 비인간동물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감각하고 불안에 시달린다. 정상 또는 보편의 범주를 구획하고 나머지를 '인간'의 영역 바깥으로 내모는 그 기제의 핵심은 재생산의 자리를 특권화하고 인간의 생애 경로를 규율하는 재생산 미래주의의 시간성, 바로 이성애 가부장제의 규범이다. 이성애 가부장제 사회는 육식과 성기 중심의 문화를 통해 남성성을 구성하면서 여성을 착취하는 한편, 남성/여성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타자들을 삶의 바깥으로 추방한다.

죽은 자들은 단선적이고 발전론적이고 미래, 재생산 중심의 근대적 시간관을 부정하는 형상으로 그려진다. 앞선 장에서 김멜라는 죽음을 재의미화하고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 규범 권력에 정지를 요청하고 괄호-공백을 열어젖히는 윤리적·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유령의 시간은 이성애 재생산 중심의 생애주기를 탈주할 수 있는 사이 공간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산 자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삶-죽음의 연결성으로 재의미화하고, 죽은 자의 흔적을 통해 내 안의 타자와 관계맺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중첩을 이루어낸다. 종미는 삶 대신 죽음을, 가정 대신 무덤을 선택함으로써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역능을 통해 가족의 시간을 탈주한다.

이처럼 김멜라는 여성/타자를 둘러싼 권력의 그물망을 중층적으로 살핀다. 죽음을 품음으로써 유령성을 부여받은 인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한다. 죽음은 인간의 경계를 넓히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잠재성을 삶 속에 품은,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규범 권력에 의해 박탈당한 애도에도 불구하고 상실의 슬픔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타자의 흔적이 나와 함께 살아있음을 감각함으로써 내 안의 타자와 만나 웃음이라는 윤리적 사건, 변화의 창발을 열어젖힌다. 그 앞에 열린 것은 삶/죽음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삶-죽음의 '사이', 근대적 시간이 해체되고 뒤섞이는 잠재적 창조의 시간이다. 이는 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대문자 지구

와의 얽힘을 감각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은 '사건'이다.

「논리」와 「제 꿈 꾸세요」의 유령 화자는 이전까지 모르던 새와 꽃, 나무의 이름을 알게 된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언어화함으로써, 그들은 우리에서 후경화될 뿐인 배경과 같은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등한 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논리」의 유령 화자 '나'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시간을 인식한다. 선형적 시간선에서 해방된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으로 혼재된 시간에 놓여있다.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 상호적으로 구성된다. 이때 물살처럼 흘러가는 시간은 인간 문명의 제도적 시간이 아닌 꽃과 나무, 새가 관계 맺는 활동을 통해 끊임없는 생성으로 비춰진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타자에 대한 '열림'을 통해 인간은 타자화의 대상이었던 대문자 지구와 비로소 마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멜라가 물질성을 띤 유령의 형상과 삶과 죽음의 '사이'라는 비결정성을 통해 관계적 존재론을 강조해온 것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세계로 확장된다.[67]

단선적이고 폭력적인 생애주기 모델과 불화하는 김멜라의 인물들은 각자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간다. 이들은 특정한 신체와 욕망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 규범과 갈등하고, 이성애 재생산과 미래주의에 복무하는 생애주기를 벗어난다.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은 이, 번민하고 방황하며 균열을 일으키는 이, 끊임없이 발전하길 강요하는 규범 속에서 주저앉음으로써 권력의 정지를 요청한 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시간을 전복시키는 이까지. '정상성'의 신화를 맹신하는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사랑'은 규범과 불화하며 이성애 중심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일으킨다.

참고문헌

67 『없는 층의 하이쎈스』, 「이응이응」, 『환희의 책』에는 모두 에코 페미니즘과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적 메세지가 담겨 있다. 『없는 층의 하이쎈스』에 나타난 관계적 존재론에 대한 분석은 양윤의의 글을 참조, 「이응이응」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적 분석은 같은 책에 실린 전승민의 평론에 잘 나타나 있다. 『환희의 책』까지 김멜라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적 요소를 분석하는 과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기본자료
김멜라, 『적어도 두 번』, 자음과모음, 2020.
김멜라,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단행본
박신현, 『캐런 바라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23, 5-88쪽.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봄, 2019, 390쪽.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도서출판여이연, 2021, 88-91쪽.
로지 브라이도티, 윤조원·이현재·박미선 역,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아카넷, 2024, 45쪽.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56쪽.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163-173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73-345쪽.
아이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25-137쪽.
앙리 베르그송,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116-147쪽.
알랭 바디우, 이종영 역,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동문선, 2001, 54쪽.
앨리슨 케이퍼, 이명훈 역,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88-191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12-46쪽.
제인 갤럽,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22-25쪽.
José Esteban Muñoz, *Cruising Utopi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p.26.
J. Jack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Part of: Sexual Cultures, 2005, p.1.

논문
김민지, 「정동의 잉여적 사유들-브라이언 마수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서철

학연구』 제96호, 한국동서철학회, 2020, 271-288쪽.
김순남·김현경·나영정·이유나,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애도의 정치: 퀴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39, no.3, 한국여성학회, 2023, 143-179쪽.
백종륜, 「한국, 퀴어 문학, 역사: '한국 퀴어 문학사'를 상상하기」, 『여/성이론』 통권 제41호, 도서출판여이연, 2019, 151-167쪽.
신수정,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유령 화자의 의미-윤성희·황정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8권 제2호(통권 제46호), 2019, 149-183쪽.
심진경, 「남성을 넘어, 여성을 지나, 떠오르는 레즈비언-김멜라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과사회』 140호, 2022, 6-25쪽.
이미선, 「애도와 유령: 유령으로서의 문학」, 『비평과이론』 Vol.24 No.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31-52쪽.
이현재, 「포스트모던 도시화와 비체 되기-젠더 '행하기(doing)'와 젠더 '허물기(undoing)'의 역동」,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도시인문학연구, 2017, 143-165쪽.
이희우, 「멸망보다 긴-김지연, 나푸름, 임선우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유령들」, 『문학들』 2022년 겨울호(제70호), 2022.11, 51-66쪽.
황규성, 「사회적 시간체제 개념의 재구성: 생활세계의 시간에 관한 이론적 탐색」, 『시민과세계』 통권 제38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161-192쪽.
Karen Barad, "Troubling time/s and ecologies of nothingness: re-turning, re-membering, and facing the incalculable", *New Formations* Volume 92, Lawrence&Wishart, 2017, p.56-86.

Abstract

The Queer Temporality of Life and Death in Kim Mela's Novels

Kang Namkyu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queer temporality in Kim Mella's early short story collections At Least Twice and Dream On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ontology. In this context, "queer" refers to practices and relationalities that deconstruct and escape the various norms, including the heterosexual norm, which constitute mainstream "normalcy." The paper investigates how linear (straight) time, based on classical physics and divided into past-present-future while assuming a universal human subject, intersects with the heterosexual norm to define the queer as "non-being" or "non-life." It also explores whether the queer time generated by queer relationships escapes and undoes linear time.

Kim Mella portrays figures of others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due to the heterosexual norm. These figures stand as beings on the border, unable to succumb to the sorrow of loss. The heterosexual norm normalizes and shapes the bodies and lives of these others through the mainstream temporal logic. In order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escaping this linear (straight) time, Kim Mella introduces a different kind of ghost, distinct from the spectral beings found in recent Korean literature. These ghosts have materiality, living through post-death time, and forming a connection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The repeated failure of mourning causes the memory of these figures to be recalled repeatedly.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ontology, memory is the trace of the other left with me, as well as the countless traces of others who have passed through "me." Therefore, memory-recall actualizes the past and allows the trace of the dead to live with me. Ultimately, the living, through the traces of the dead, relate to the other within them, creating an overlap between life and death. This becomes a life that embraces the infinite potential of death, a life chosen to live with death, where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is blurred. The time of life-death "in-between" is a time of potential creation and destruction, where modern time is deconstructed and intermingled. It represents an "event" that transitions from finitude to infinity, holding the potential for us to sense our entanglement with the Earth. This becomes a precursor to Kim Mella's later move toward a posthuman ontology in her works.

Key words: Queer Temporality, Ghost, Memory, Grief, Heteronormativity, Relational ontology, Quantum mechanics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4.
게재확정 / 2024.12.08.